

대북제재 꿈쩍않는 中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

美 유엔 결의안 표결 앞두고 연일 초강경 제재 압박 원유 공급 중단 빼고 일부 양보 물밑 타협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요청한 가운데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맞섰다.

미국 요구대로라면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 안보리 표결이 예상되나, 그에 하루 앞선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출로는 대화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안보리 표결 직전까지도 미국에 반기를 든 셈이다.

그러나 초강경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에 러시아와 연대한 중국이 맞서는 현상

황에서 ‘타협’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 중국이 인민일보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제재보다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 보인다.

미국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에 원유 금수는 물론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 김정은 일가의 해외 자산 동결,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차단·검색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일부를 수용하는 식으로 미중 협상도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대북 원유 금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일부 양보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의 새 외화벌이 수

단으로 떠오른 북한의 섬유수출 봉쇄에 나서는 한편 북경 접경 무역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은 실무 외교사령관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12~13일 미국에 보내 ‘물밑 협상’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민일보가 대화·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미·중·러 협상이 무위로 끝나 미국의 대북 제재 결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명분쌓기 의도를 포함한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으로서 ‘일정 수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원하지만, 핵심사안이라고 할 대북 원유 공급 문제 등으로 미중 양국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됐을 때를 대비한 입장 정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은 기존 안보리 제재 결의역시 대화·협상을 배제한 적이 없다는 논

리를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로 북한 붕괴 상황이라는 걸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절한’ 제재를 촉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차 제재)은 물론 한국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의 핵무장 허용설까지 흘리면서 압박하는 데 대해 중국이 정면 대응을 삼가면서 북한 문제의 대화 해결을 강조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중국이 대화·협상 카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이격’시키려는 기색도 엿보인다. 실제 인민일보는 이날 사실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근대 트럼프 미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만나 한 반도 문제에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9 고구려 멸망시킨 고종

高宗(628~683)은 당나라의 3대 황제로 이름은 이치다. 태종의 9남으로 모친은 장손황후다. 황제로 즉위한 후 폐하의 변명을 이끌었으나 건강이 악화되면서 축전무후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었다. 태종의 9남으로 후계자 구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태자 승건의 난행이 계속되자 폐하가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태종의 다섯째 아들인 제왕 이후의 모반이 일어났다. 조사 과정에서 태자 승건이 연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자의 모반 사건에 장군 후군집이 연류되었다. 태종은 후군집을 처형하고 태자를 폐위키로 결정했다. 능연각 24인의 한명인

왕비인 왕씨를 황후로 세웠다. 왕황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소속비가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태종의 후궁이었던 무측천이 입궁하자 고종의 총애가 그녀에게 기울었다. 결국 왕황후를 폐하고 무측천을 새 황후로 세우려고 결심했다. 고명대신인 장손무기, 저수량 등이 강하게 반대했다. 태종의 유지를 쓴 저수량은 “황제께서 황후를 바꾸시려면 천하의 명문가에서 뽑아야지 하필 무씨 일가가. 무씨는 선제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며 극력 반대했다. 황후를 바꾸는 것은 “황제 집안의 일”이라는 이세적의 주장에 힘입어 무측천을 황후로 뽑았다.

그녀는 잔인한 성격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조정대권을 장악했다. 중종, 예종 등 네명의 아들을 낳아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고종에 대한

무측천 황후 뽑아 국정 농단 방관

후군집의 처형은 태종에게 커다란 고통이었다. 후임 태자를 놓고 4남 위왕 이태를 미는 세력과 9남 진왕 이치를 미는 세력이 대립했다. 저수량은 이태의 호전성을 일찍이 간파했다. 그는 “폐하께서 위왕을 태자로 세우시려거든 먼저 진왕을 처리해 후환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라고 직언했다. 태종은 결국 장손무기 저수량 이세적 등의 지지를 받은 이치를 낙점했다. “어질고 효성스럽다”는 인품이 그를 3대 황제로 끌어 올렸다.

고종은 즉위 후 대 고구려 전쟁과 토목공사를 중단시켰다. 민생의 안정에 노력했다. 태종 말년 요동 정벌 등으로 국력이 소진되고 민생의 어려움이 커졌다. 영위 3년(652) 전국 인구 300만 호에서 380만호로 증가했다. 654년에는 풍년이 들어 전국의 곡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각종 제도와 정비에 박차를 가해 653년 성문법전인 당률소(唐律疏議)를 완성 편찬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공략도 신라와의 동맹을 계기로 크게 성과를 내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을 보내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패망시켰다. 조정방, 이세적, 설인귀, 유인계 등을 보내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요동지방에 9개의 도독부를 설치했다.

무측천의 등장은 통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영위 원년(650년)

비판 중 하나가 무측천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인데 어지럽증이 심하고 시력이 나쁜 고종으로서의 그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다. 그녀는 적절한 조언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보필했다. 고종과 무측천은 이성(二聖)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건강이 나빠진 고종 말년에 그녀의 권세와 역할이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측천이 처리하는 일마다 황제의 뜻에 부합했다”는 사서의 기록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무측천의 권력이 커지자 고종은 그녀를 폐할 생각을 했다. 제왕인 상관을 불러 상의했다. 상관은 “황후의 전횡에는 조정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위를 사기십시오”라고 건의했다. 상관의에게 무측천을 폐하라는 조처를 성안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눈치챈 그녀의 반발로 폐황후는 없던 일이 되고 상관의에게 죽음이 내려졌다. 상관의 일가는 모두 궁중의 노비가 되었다.

674년부터 마지막 10년은 고종과 무측천의 공동 통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고종 사후 사실상 무측천의 독재가 가능해 되었다. 682년 태산으로 행차해 봉선(封禪)을 행하였다. 683년 낙양의 정관전에서 56세로 세상을 떠났다. 12월 병이 심해지자 제왕 배렴을 불러 유조를 내렸다. 이현이 중종으로 즉위했다.



허리케인 ‘어마’ 美 플로리다 상륙 허리케인 ‘어마’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가운데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마이애미 거리의 통행을 막고 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어마는 최고 풍속이 시속 177km(110마일)로 줄어 2등급으로 약화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허리케인의 눈이 플로리다 서부 해안을 따라 지나간 후 폭풍해일이 즉각 닥칠 것으로 예상돼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마이애미 EPA-연합뉴스

“허리케인 2연타 美피해액은 300조원” 재난위험 평가업체 전망

최근 초강력 허리케인인 하비와 어마가 미주 대륙을 강타하면서 총 피해액이 3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난위험 평가업체인 RMS와 엔키 리서치 등에 따르면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최대 2천200억 달러(약 29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CNN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우선 지난달 미국 텍사스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하비 때문에 최대 900억 달러의 피

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RMS는 하비가 미국 본토를 강타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700억~9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보험 처리가 되는 비용은 250억~350억 달러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RMS는 플로리다 주를 지나갈 어마와 관련해서는 허리케인 진행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 추산결과를 11~12일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난 평가업체 AIR 월드와이드는 어마로 미국

에서만 보험 보장 피해액이 150억~500억 달러에 이르고, 카리브 해 연안의 피해액은 최대 650억 달러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엔키 리서치의 척 왓슨 애널리스트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왓슨은 10일 미국에서 총 1720억 달러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 가운데 650억 달러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400억 달러는 국가홍수보험(NFIP)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왓슨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北 수소탄 개발 속도 미국의 30년전 수준” 日 사와다 조교수

지난해 9월에 이어 최근 6차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며 30년 전 미국과 옛 소련이 도달한 수준까지 이르렀을 수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수소폭탄은 1단계에서 고성능 화약을 사용해 플루토늄을 압축, 중수소와 3중수소 가스를 핵융합시키고 이때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과 열이 2단계에서 고농축 우라늄에 전해져 핵분열을 일으킨다.

도쿄공업대 선도원자력연구소의 사와다 데쓰오 조교수는 “수소폭탄의 폭발력은 2단계에서 80~90%를 담당한다”며 “이번에는 위력의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사와다 조교수는 “미국과 옛 소련이 30년 전에 도달했던 지점에는 온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의 구로키 아키히로 상무이사는 “기술의 진전이 너무 빠르다”며 “시행착오로 여기까지 다다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구로키 상무이사는 “이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 등을 증가시켜 더욱 위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각종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관광온천지구 **K호텔**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문의. 010-3605-5000